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056.41 (+57.28)		911.07 (-5.04)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2.996 (-0.003)		1479.40 (+2.40)

여천NCC 통폐합 되나 이번주 자율재편 마감 정부 목표치는 가시권

석화업계 구조조정 압박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산업 자율 재편안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산·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합작사 설립과 일부 설비 감축, 노후 공장 폐쇄를 축으로 한 재편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이번 주 정부 제출을 목표로 사업 재편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며 최종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천 NCC 대주주간 협의 진행중 DL케미칼-한화, 감산규모 논의 LG화학-GS칼텍스, 합작사 설립 '2공장 중심' 운영 시나리오 유력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 여수 단지에서는 여천NCC를 둘러싼 대주주 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금 지원 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사업 개편안에 있어 공장 폐쇄 대상과 감산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DL케미칼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에틸렌 생산량을 연 90만 톤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물량 비중이 큰 1공장(연 90만톤)이나 2공장(연 91만5000톤) 가운데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화솔루션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연 47만 톤 규모의 3공장을 우선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 단지에서는 또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사 설립과 일부 설비 감축, 노후 공장 폐쇄 등을 중심으로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G화학은 여수에서 1공장(약 120만톤)과 2공장(약 80만톤)을 가동 중인데 합작사가 출범할 경우 노후 설비로 분류되는 1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신식 설비인 2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나리오가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사는 합작사 지분 구조와 설비 운영 방식, 역할 분담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단지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에쓰오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 3사가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제출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과정에서 SK지오센트릭은 울산단지 내 연 66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설비를 폐쇄하는 방안도 선택지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산단별 사업 재편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의 큰 방향성은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세부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를 전후해 정부에 사업 재편 계획이 순차적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충남 대산에서는 지난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물적 분할과 합병을 골자로 한 제1호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6일 두 회사를 사업 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채무 만기 연장을 결의했다. 채권단은 실사를 거쳐 재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회사·모회사의 자구계획, 채권단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한다. 최종 의결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대산·여수·울산 3대 석유화학단지에서 감축되는 에틸렌 생산능력은 총 223만 톤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최소 감축 목표치인 270만 톤에 근접한 규모로 추가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목표 달성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 제출 이전 단계인 만큼 정부가 추가 감축을 요구하거나 조정 폭을 달리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구조조정안 확정 이후 정부 지원책의 시기와 규모 역시 변수로 꼽힌다. 산업자원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 제정 이후에야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내년 초, 길게는 두세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이재현 “중동 K-웨이브 기회 놓쳐선 안돼”

CJ그룹 회장, UAE 방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 일본·미국·유럽을 잇는 올해 글로벌 현장경영의 마지막 행선지로 중동을 택한 것이다.

이번 일정에는 이미경 CJ 부회장, 김흥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그룹장 등 주요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먼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인 칼둔 알 무라바크를 만나 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이끈 핵심 인물로, 이 회장과는 지난 9월 영국 현장경영 당시에도 교류한 바 있다.

이어 모하메드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의장, 압둘라 알 하마드 UAE 국립미디어오피스의장과도 잇따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와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현지 협력 모델과 사업 전략이 논의됐다. CJ는 현지 정부기관 및 미디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KC ON 등 대형 라이브 이벤트 추진과 콘텐츠 제작·투자, 글로벌 제작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레고리옌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현지 임직원들을 만나 할랄 식품을 중심으로 한 중동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



CJ그룹 이재현회장이 압둘라 알 하마드 UAE 국립 미디어 오피스의장과 만나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CJ그룹

무바달라 국부펀드 CEO 등 회동 문화·경제 전반 협력 가능성 논의 “절실함 갖고 신영토 확장 승부수”

이를 거점으로 할랄 식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가 및 제품 라인업을 넓혀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시장에서 K웨이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의 중동 방문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공식 초청 이후 약 1년 만으로, 중동 시장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J그룹은 지난달 열린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과 뷰티 분야에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CJ제일

제당은 UAE의 종합기업 알 카야트 인베스트먼트(AKI)와 협약을 맺고 비비고 등 K푸드 유통 협력을 추진한다. CJ 올리브영은 UAE 전역에 500개 이상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라이프헬스케어 그룹(LHG)과 손잡고 K뷰티의 현지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중동에서 식품·엔터테인먼트·뷰티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할랄 인증을 받은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을 전략 제품으로 선정해 현지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추진한다. 올리브영은 상품 소싱 경쟁력과 LHG의 유통망을 결합해 유망 K뷰티 브랜드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CJ ENM Middle East’를 중심으로 현지 방송사 및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라이브 콘서트, 현지 스타 IP 발굴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 ‘맹탕’ 청문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과방위, 김범석 등 핵심증인 불출석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등 5명 나와 여야, 개인정보 유출 진상규명 의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Inc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쿠팡 측 임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김범석 의장과 전직 대표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김범석의 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

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사들도 한목소리로 쿠팡의 행태를 규탄했다.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이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전 세계 190개국을 다니며 세일즈를 한다 해도, 매출의 90%가 나오는 한국 시장의 국민이 분노하면 그 기업은 존전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역시 “청문회 불출석은 사실상 한국 사업 포기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사진 뉴시스
▲한미 외교 당국자 ‘대북 조율’…통일부는 “필요 시 따로”

▲유엔군사령부, 여당·통일부 추진 ‘DMZ법’에 이례적 반대 성명
▲“윤석열이 날 업어키워?”…펼쩍 똥 한동훈 “개똥 같은 소리”

▲野김기현 압수수색에…장동혁 “‘통일교 게이트’ 국면전환용” 비판
▲계엄 1년 전 대북전단 재개 결정…합참 “기록 남기지 마라” 지시

“단기성과 집중·상품 बे끼기 안돼”… 자산운용 업계 ‘경고장’

금감원, 자산운용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
업계 대원칙임에도 반복강조 해야”

“자산운용사, 스타트업 지원 등
모험자본 생태계 연결고리 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बे끼기와 단기 성과 경쟁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디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며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기 성과에 매몰된 상품 집중 출시와 운용사 간 유사 상품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20개 자산운용사 CEO 등이 참석했다. /허정윤 기자

품 확산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펀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공개적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와, 일반 공모펀드에서 차별화된 운용 전략

이 부족한 데다 보수체계가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업계를 질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D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격 TDF 인정 요건을 정비하고, 공모펀드 보수체계 합리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한층 날 선 표현이 나왔다. 이 원장은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은 운용업계의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 앞세운 사업 전략으로는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상품 공급자’에 그치지 말고 생산적 금융의 핵심 주체로 확장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저성장장과 투자 위축 국면에서 자산운용사가 스타트업 초기 지원 등 모험자본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

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잇는 연결 플랫폼 구축, 상품·인가 심사체계 정비,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과 스튜어디십 코드 이행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파수꾼(운용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를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세계 측면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쿠팡 ‘맹탕’ 청문회’서 계속

‘UAM 시대’ 눈앞… 2028년 서울서 ‘하늘 택시’ 운항

서울시 ‘S-UAM 시범운항’ 브리핑
‘정책수정’ 도심 실증단계 건너뛰고
초기 상용화-성장-성숙 재정립
2030년 이후 본격 확산단계 목표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K-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 실증 단계를 건너뛰고 2028년부터 초기 상용화 성격의 시범운항에 착수한 뒤, 2035년 도심 UAM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형 UAM(S-UAM)’ 추진 경로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수진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S-UAM 시범운항’ 브리핑에서 “국가 상용화 목표가 조정됐다고 해서 서울시가 준비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실증 단계가 빠진 만큼 상용화 직전 단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기체 인증 지연 등을 이유로 국내 UAM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준도심 지역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K-UAM 정책을 수정



S-UAM 가상 모습. /서울시

했다. 조정의 바탕에는 전 세계적으로 순연되고 있는 UAM 사업 배경과 연계되는데, 현재 미·중국 등 중심으로 UAM 기체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기관 인증 관문에서 답보를 겪으며 상용화 목전에서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기존 UAM 로드맵에서는 실증-시범운항-상용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시범운항은 실증 후인 2024~2025년 사이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체 인증과 실증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가 비도심·준도심 지역에서 실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심 실

증을 전제로 한 일정은 사실상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기존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 전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의 3단계로 재정립했다.

이 과장은 “국제 인증을 받은 기체가 국내 인증 절차를 마치는 즉시, 별도의 도심 실증 없이 초기 시범운항과 상용화 단계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항의 주요 무대로는 한강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이 도심 내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성 확보가 용이한 데다, 도심과 부도심,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 시범운항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관광 수요

와 민간 운항사업자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한강 상공 활용 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광역 수요 분석과 주요 거점 간 노선 시나리오, 통합 운항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연구와도 연계해 수도권 차원의 UAM 네트워크를 사전에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광과 의료 수요를 포함한 다양한 활용 모델도 검토된다. 한강과 도심 경관을 활용한 관광형 노선과 함께, 대형병원을 잇는 의료 이송 수요 등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말 수도권 공동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체계를 확정·발표하고, 2028년 초기 시범운항을 거쳐 2030년 이후 본격 확산 단계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 과장은 “국가 로드맵의 현실을 반영하되, 수도권이 함께 준비하면 상용화 기반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며 “안전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단계별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nj@

“이 자리에 오게 돼 기뻐” 임시대표 답변 도마 위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자커버그나 아마존의 베이조스도 미 의회 청문회는 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국어인 한국어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임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자리를 대신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와 브렛 매티스 CISO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이들은 통역을 통해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나, 의례적인 답변과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쁘다(Happy to be here)” 등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김법석 의장이 왜 안 나왔냐는 질문에 ‘Happy to be here’라고 답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이는 ‘내가 사장이니 나한테 물어라’는 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아니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아예 질의를 생략하고 쿠팡 앱 탈퇴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무언의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보상안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법석 의장의 직접 사과 여부나 구체적인 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쿠팡이 미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중단은 없다”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피해자보다 해외 투자자를 더 의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두산그룹

SK보유 지분 70.6% 매각

두산그룹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K(₩)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또한 “체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

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전체 회사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

지 SK실트론 지분 29.4%를 이번에 함께 매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 웨이퍼 전문 제조기업인 SK실트론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물로 나왔다.

SK실트론이 처음 매물로 나왔을 당시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사모

펀드(PE) 운용사가 인수 경쟁을 벌였지만, 인수 가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SK그룹은 SK실트론 매각가격으로 3조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이 인수협상대상자로 부상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두산은 인수 후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두산그룹은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트나 자회사 엔지온을 인수하는 등 반도체 소재 장비 사업을 육성하며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부 업무보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시동… 60조 이상 집중투자



산업통상부

지역 성장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M.AX 얼라이언스’ 중심 AI 대전환
김정관 장관 “권역별 산업 육성”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선정 산업에 대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형태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산업과 성장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파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외부 충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먼저 지역 성장에 ‘올인’ 하고,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선정 산업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

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권역

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 새만금·청주·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 신유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인프라 등 지역 맞춤형 미래 성장엔진 기반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1000여 개 산·

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총 500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만든다. 아울러 13개 AI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 전반으로 AI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하는 신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한-UAE 협력 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과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윤리 김 장관은 “산업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털어내는 게 우선이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의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이고 조직혁신 TF를 구성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년 정책 ‘지역’ 포커스… “성장사다리 복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지역’에 더욱 올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태계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공동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 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K-컬처’와 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벌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총 3조5000억원의 지역성장펀드를 30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

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를 조성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늘린다. 사업영역보호 등 상생협약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대출이 있는 전체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포착시 AI 경영 분석과 맞춤 정책을 안내한다. 30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을 돕고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상자산 시장 칼바람…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56% ↓

(연고점 대비)

美 금리변동, 비트코인 반감기 등 영향
전문가들 “횡보세는 유지할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56%나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4년 주기론’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

인은 17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 6748.9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18%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4000달러 넘게 하락한 전일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지난 10월 7일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선 약 31.22%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 두 달여 만에 30% 넘게 하락한 가운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가 대비 40.24% 하락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36.69% 내렸다. 4위 리플(XRP)은

49.66%, 5위 솔라나(SOL)는 56%나 급락했다. 알트코인은 통상 비트코인을 추종하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알트코인 전반도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지난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재료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증시·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천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물린 ‘4년 주기론’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2009년·2012년·2016년·2020년)의 반감기에는 1~2년 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진 뒤 가격이 고점 대비 70% 이상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국면이 종료되고 급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성을 유지하는 한편, 급격한 가격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LMAX의 조엘 크루거 외환·가상자산 전략가는 “이번 주 시장은 거시경제 데이터와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특화된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가격 움직임은 변동성은 크나, 횡보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EV 둔화, 배터리 산업 구조전환 가속… ESS 중심전략 전환

K-산업 결산 ③ 배터리

전기차 수요 감소에 점유율 하락
공장 가동률 조정으로 수익성 압박
데이터센터 투자로 ESS 급성장
LG·삼성·SK, 북미 ESS 공급 계약
북미 생산·LFP 배터리 투입 강화

올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통상·정책 변수 확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한 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됐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수출 통제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EV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력망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수요 축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ESS를 중심으로 한 사업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EV 부진에 점유율·가동률 동반 하락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입지도 눈에 띄게 약화됐다. SNE리서치 집계 결과 올해 10월 기준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합산 점유율은 16%로 전년 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출하량 감소는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3분기 59.8%에서 올해 3분기 50.7%로 9.1%p 떨어졌다. 삼성SDI 역시 같은 기간 68%에서 49%로 약 19%p 하락하며 가동률 조정 압박이 커졌다. SK온만 전년 3분기 46.2%에서 올해 3분기 52.3%로 7.1%p가량 올랐지만 1분기 저점 이후 반등 폭은 제한적이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는 시장 구조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축소와 금리 부담이 겹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다.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해왔지만 올들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점유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0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이 24.2%에서 21.0%로 3.2%p 하락해 2위에 머문 반면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110.1GWh의 공급량을 기록하며 1위(29.2%)를 차지했다. BYD는 배터리 공급량이 141.2% 성장하며 점유율 순위 5위(7.6%)로 뛰어올랐다.

이같은 부진 속에서도 하반기 들어 정책 변수의 방향성이 점차 드러나며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 정부 예산조정법안(OBBBA) 조정으로 미국 내 생산세액공제(AMPC)는 대체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수준의 관세 합의가 이뤄지면서 EV·ESS 관련 부담도 일부 완화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중심 성장 국면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책·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정리된 점

이 사업 전략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SS 부상… 전기차 둔화 속 새 성장축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력망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맞물리며 ESS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미국 ESS 시장이 올해 59GWh에서 2030년 142GWh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ESS 시장 역시 2024년 19.1GWh에서 2030년 83GWh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22.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SS 시장은 그동안 중국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2019~2020년 국내 ESS 화재 사태로 주춤한 사이, 중국 업체들은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다. 다만 전력망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ESS 시장은 정책 환경과 수요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증



LFP 배터리가 탑재된 ESS 제품. /삼성SDI

설이 본격화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용 LFP 배터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7월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과 2027년부터 3년간 5조9442억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I는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와 2조원 이상 규모의 ESS용 각종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LFP ESS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SK온 역시 지난 9월 미국 플랫아이언에너지 개발과 LFP 파우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ESS 시장 첫 수주를 확보했다.

◆북미 생산 확대… ESS 중심 전략 재편 가속

배터리 3사와 주요 소재사들이 추진해 온 대미 진출 프로젝트가 공장 가동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미 현지 생산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북미 생산 거점 확보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양극재·음극재 등을 포함한 탈중국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가동 중인 미국 전기차용 각종 배터리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 양산 중이며 기존 EV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해 양산 시점을 앞당겼다. 홀랜드 공장의 ESS 생산 능력을 올해 말 17GWh, 내년 30GWh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SK온은 포드와의 미국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 소유·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SK온은 테네시주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로 통해 켄터키주 공장을 맡는 구조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개점과 보조금 축소로 정체된 반면 ESS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단독 운영 체제를 통해 ESS 중심 생산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배터리 셀 제조사를 넘어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 기업들까지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현지 전기차·ESS 배터리 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사 '얼티엄 캡'이 캐나다 퀘벡주에 건설 중인 양극재 공장의 1단계 시설투자 완료 시점을 내년 10월 31일로 확정했다. 완공 후 연산 3만 톤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를 생산해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의 배터리에 적용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배터리 산업은 일시적인 수요 위축을 넘어 사업 구조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진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ESS를 중심으로 한 수요 재편과 북미 생산 전략이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경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내년 주택공시가격 2.51% 상승… 서울 4.5% ↑ '6개월치 급여 100%' 도입 후 육아휴직 최다

전국 표준주택 평균가격 1억7385만원
서울 6억6388만원, 전남 4465만원 수준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3.35% 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1% 오르고, 서울은 4.5%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중 25만 호를 '샘플'로 삼고,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와 중부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산정과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달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주택 53.6%를 적용했다. 올해 대비 2.51% 오른 수치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23년 5.95% 하락한 이후 3년째 오름폭(0.57%→1.97%→2.51%)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억7590만원, 대전 2억 1882만원 순으로 높았다.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은 4465만원으로, 서울의 약 6.7%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65.5%를 적용했다. 올해보다 3.35% 올랐는데,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

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나 민원실을 통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서를 발급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채리 인터넷기자 cr56@

남성 육아휴직 18% ↑, 비중 29% 최고

지난해 아이돌봄 목적의 휴직계를 낸 남성이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건수가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19만8218명) 대비 4.0% 증가한 20만6226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의 3+3 육아휴직제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남성 수가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모(母)는 2023년 14만7403명에서 2024년 14만6109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는 2023년 5만815명에서 2024년 6만117명으로 18.3%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부(父)의 비중도 1년 사이 25.6%에서

29.2%까지 증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늘면서 엄마는 조금 휴직을 덜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가 38.7%로 가장 높았다.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42.9%),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67.9%는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14.8%), 5~49명(12.7%), 4명 이하(4.3%)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자 수도 적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57.7%),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으로 휴직자 수가 많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생중계 업무보고’ 정쟁화 비판에 “행정-정치 명확히 구분”

인천공항 사장 공개질타 비판에
李 대통령 “색깔로 불이익 줘나
지휘·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

韓 국민, 부당·불투명 용인 안 해
생중계 리스크, 감당 의지 보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가 정쟁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 이 대통령은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생중계를 결정했고, 실제로 생중계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만기친람식 업무보고가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것을 놓고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과정에서 책을 사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한 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을 반박해 해당 사안이 정쟁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줘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소관 기관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세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항공사의 ‘경비·검색범위’에 ‘미화 1만달러 초과외화’를 포함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업무는 세관 소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

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불(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가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든 사람들이 있다”며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책갈피에 달라를 숨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범죄 수법을 언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린 게 보도자료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는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란 말이나”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생중계 부처보고로 인해 종합적인 정책 기초가 아니라 ‘달리’ ‘탈모’ ‘환단고기’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지적이 공식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만기친람이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도 반박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인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생중계는 부처 관계자들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고를 받고 여러 사안을 챙기는 이 대통령이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 본인이 한 말실수에 대한 비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 진실 아냐… 통일부 방침 지지”

강원 춘천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대북 주도권 둘러싼 부처갈등 부인

“文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 대한 우려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조속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내 외교부·통일부 간 갈등설에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향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통일부 일각에서 이 협의체가 대북 제재 심의 기구로 작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향간

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쫓고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석유공사 ‘대왕고래’ 수익성 검토부실 질타

석유공사 “배럴당 생산원가
변수 많아 정확한 수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 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

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냐”, “계산을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 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냐”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냐”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냐”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

산도 안 해봤냐”라고 다시 물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선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냐. 이거 너무 싸다”면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흠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 해봐도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범죄 관련해서 과징금이 적고,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문제에 대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치솟는 환율·가계부채… 한은, 금리 ‘인하-동결’ 딜레마

원·달러 환율 16년 만에 고점
‘원화 약세’ 물가 자극 등 우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줄었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커져
한은, 기준금리 완화 속도 조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기준금리보다 환율과 가계부채에 쏠리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환율 상승)에서 달러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규제 강화 속 2금융권으로 번지는 대출 흐름이 겹쳐 한은의 완화 속도를 묶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달러로 유지한 채 만기일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를 현물환 시장에서 아나인 스와프를 통해 일부 분산·완충해 환율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해외투자를 집행한 뒤 만기에 다시 맞교환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해야 하는 압력을 줄여, 달러 수급이 타이트해질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고점(원화 약세) 부근까지 치솟은 바 있어 정책당국이 달러 수급 관리 카드를 장기화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경로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해 외환스와프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악한 원화’가 정책 판단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

회 위원 역시 최근 원화 약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구매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가 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경기만 보고 ‘완화 속도’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한은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에 부합하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더 신중해질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쪽 또 다른 ‘제약’은 가계부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는데, 은행권 증가폭은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돼 업권 간 이동(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업권별로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에서 증가폭이 커졌다. 대출 규제·심사 강화가 ‘총량 억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도 읽힌다. 금리를 낮추는 순간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비은행권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충돌은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환율·가계부채 여건은 한은이 ‘동결-완화’ 사이 간격을 쉽게 넓히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은 1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다고 밝혔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은은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제약을 동시에 넘겨야 한다. 다음 기준금리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내릴지”보다 환율과 대출 흐름이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감당할 만큼 진정됐는지에 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연임성공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인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새로 선출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연임은 불가하다.

한편, 이번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시행됐다. 투표 및 개표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1000원 스키보험… 독감 걸려도 치료비 드려요”

손보사 ‘계절형 미니보험’

롯데, 겨울시즌 ‘CREW 스키보험’
24시간 보장 1회권, 시즌권 나눠 운영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
한랭질환 등 ‘계절별 패키지’ 제공

‘계절형 미니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신성장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루 1000원짜리 서핑보험과 24시간 보장 스키보험, 계절별 감기·한랭질환까지 챙긴 4계절보험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액·단기 상품이 앱 기반 디지털 채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계절·상황별로 위험을 세분화한 미니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 여름 여름철 대표 레저인 서핑을 위한 전용 상품 ‘let’s safe 서핑보험’을 선보인 데 이어, 겨울 시즌을 맞아 ‘CREW 스키보험’을 리뉴얼하며 계절형 미니보험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서핑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판



롯데손해보험 스키보험 이미지. /롯데손해보험

매된다.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누구나 하루 1000원(1회당)으로 서핑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서핑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골절로 인한 김치 치료시 10만원, 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표자 1명 가입으로 동반 최대 10인까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함께 가입’ 플랜도 마련했다.

‘CREW 스키보험’은 한층 세분화된 플랜으로 돌아왔다. 스키장 방문 패턴



삼성화재 4계절보험 겨울플랜 이미지. /삼성화재

에 맞춰 24시간을 보장하는 ‘1회권’ 플랜과 스키장 폐장 시점까지를 한 번에 보장하는 ‘시즌권’ 플랜을 나눠 운영한다. 하루만 스키장을 찾는 고객은 1회권 플랜을 선택해 1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시즌권 플랜은 약 1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오는 2026년 3월 폐장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비 20만원, 골절 수술비 20만원, 김치 치료비 10만원에 스키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300만원 등으로 설계됐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 계절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한 중심의 계절형 미니보험도 등장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월 다이렉트 전용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묶어 한 계절에 한 번만 가입하면 해당 계절 종료 시까지 보장이 이어진다. 겨울플랜은 겨울철 특화 담보를 강화해 지난 12월 1일부터 가을플랜 종료 후 자동 전환했다.

겨울플랜은 본격적인 한파와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겨울철 특정 감염성 질환 진단비, 호흡기계 다빈도질환 입원일당·수술비 등을 주요 담보로 내세웠다. 날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 리스크를 ‘계절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 변화에 따라 주요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4계절보험에서는 고객에게 계절별 맞춤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파와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겨울플랜을 통해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역삼센트럴자이

이틀간 2만여 명 몰려

1순위 경쟁률 487대 1

1만 명 넘게 신청한 특별공급에 이어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이틀간 청약통장 3만개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10억 로또’를 노리는 현금 부자 수요가 커지며 1순위 경쟁률은 400대 1을 훌쩍 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를 모집한 결과 2만143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87.1대 1을 기록했다. 전란 특별공급에는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해 2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이 1692.3대 1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전용 84㎡A(467.5대 1), 84㎡D(154.0대 1), 84㎡C(141.0대 1), 84㎡B(115.5대 1), 122㎡(109.6대 1) 순으로 높았다.

청약이 대거 몰린 배경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현금 부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 59㎡ 20억 1200만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원, 122㎡ 37억 9800만원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해보면 구축 아파트 개나리레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역삼센트럴자이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원 수준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치열한 청약 경쟁률은 현금 부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삼센트럴자이가 지어지는 강남구는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도 10년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보증 기반 중소·벤처 금융지원

신보·기보와 ‘생산적 금융 강화’ 맞손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기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술·수출·창업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및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 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신규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한은행은 업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증 연계 대출을 제공해 실물경제 기반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정밀한 명암, 생생한 색상 구현” 삼성, 마이크로 RGB TV 확대

RGB LED로 명암·색상 정밀 제어 AI 엔진으로 콘텐츠별 최적 색상 구현 깊은 검은색과 밝은 장면 섬세 표현 BT2020 100% 달성·VDE 인증획득 CES 2026 전시로 차세대 화질 체험

삼성전자가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최초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형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빨강,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 μ m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한다. 소자가 미세해진 만큼 깊은 검은색과 밝은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정한 색 정확도 지표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해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VDE로부터 ‘Micro RGB Precision Color’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고성능 AI 엔진을 탑재해 모든 콘텐츠에서 압도적인 색상을 구현한다.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마이크로 RGB AI 엔진은 ▲콘텐츠를 4K로 업스케일 해주는 ‘4K AI 업스케일링’ ▲AI가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 등의 성능을 갖춰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또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빅스비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을 갖춰 TV 업계 최다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해 사용자는 다양한 AI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RGB TV는 단순 스크린 역할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을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새롭게 떠오르는 프리미엄 제품인 마이크로 RGB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더 퍼스트룩’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마이크로 RGB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탑승자 맞춤형 AI 차량 솔루션 공개

CES서 맞춤형 체험존 운영 OLED AI로 운전석 정보 제공 시선 인식으로 안전·편의 강화 AI 큐레이션으로 뒷좌석 경험

LG전자가 탑승자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공개한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탑승자 맞춤형 공간을 구현하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CES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은 ▲전면유리에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석 전체로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디스플레이 솔루션’ ▲운전석과 조수석에 비전 AI를 적용해 시선에 따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전 솔루션’ ▲AI 큐레이션으로 뒷좌석에서 콘텐츠, 영상 통화, 번역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의 3가지로 구성됐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체험존에서 관람객은 투명 OLED가 적용된 전면유리를 통해 AI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나타나면 신호등 주변에



LG전자가 CES 2026에서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해 운전석부터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차량 내부 모두를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자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대기 시간을 표시해 주는 등 AI가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판단한 뒤 엄선해 보여준다.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인 운전석에서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미지를 재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전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인캐빈 센싱 기술에 AI가 적용된 운전석 및 조수석을 경험할 수 있다. AI가 운전자 시선을 분석해 일정 시간 이상 시선 이탈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전환한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탑승자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탑승자의 시선이 멈춘 전광판에서 광고 중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AI가 적용된 차량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인다. 탑승자는 AI 큐레이션을 통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험을 할 수 있다. AI는 창문 건너 펼쳐진 풍경을 인식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창문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LG전자 V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와 이미 논의 중인 인캐빈 센싱 등 양산 중인 솔루션에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했다”라며 “이러한 혁신을 수년 내 현실로 만들어 인공지능 중심차량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D, OLED 기술 브랜드 ‘탠덤’ 론칭

RGB 적층으로 대·중형 OLED 경쟁력↑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브랜드를 론칭하며 OLED 기술 철학과 차별적 고객가치를 적극 소통하고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입지 강화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기술 브랜드 ‘탠덤 WOLED’와 ‘탠덤 OLED’를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OLED 소자의 적층 구조를 통해 장수명·고휘도·저전력 등 내구성과 성능을 높인 LG디스플레이 OLED의 강점을 강조하고자 ‘탠덤’을 브랜드 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형 OLED 기술(TV 및 모니터)과 중소형 OLED 기술(차량용, 태블릿, 노트북 등)을 분리하여 특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각각의 기술 브랜드를 분류했다.

대형 WOLED의 브랜드 명은 ‘탠덤

WOLED’다.

업계 최초로 빛의 삼원색인 R(레드), G(그린), B(블루) 소자를 각각 독립된 층으로 쌓은 적층 구조를 의미하는 탠덤에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의 고유 특성인 화이트 광원을 의미하는 ‘W’를 더해 직관적인 브랜드명을 완성했다.

중소형 OLED 브랜드는 ‘탠덤 OLED’로 RGB 소자층을 2개로 쌓은 기술적 특징을 반영했다.

LG디스플레이 OLED의 기술 브랜드는 사업 시작 13년만에 처음이다. 기술 단위 수준에 머물던 명칭들을 ‘탠덤 WOLED’와 ‘탠덤 OLED’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했다. 이로써 고객에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기술 브랜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처음 공개된다.

/차현정 기자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로 설비 신뢰성 강화

HD현대오일뱅크

노후 핵심설비 선제 관리

HD현대오일뱅크가 주요 생산설비의 신뢰성을 높여 공장 가동 효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의 핵심설비의 노후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티에이징(Anti-Ag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35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대산공장은 1989년 제1공장 준공 이후 1996년 추가 증설을 거쳐 2011년 신규 고도화 공정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정기보수와 설비 보완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주요 장치들의 가동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비 신뢰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 개선 투자나 문제 설비 위주의 긴급 교체 등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과 근본 원인 중심의 개선, 조직·설비 간 통합 검토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장 가동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설계·검사 등 주요 부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0여 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설비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올해에는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해 재질 업그레이드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주요 개선을 완료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비상 가동정지(Shutdown) 및 경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7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고위험·다량 설비 개선을 마친 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시스템 개선과 설비 신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2단계를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위아, AI 공조·차세대 구동기술 첫 전시

듀얼 등속조인트·ARS·WDS 공개

현대위아가 내년 1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에서 공조시스템과 구동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공개한다.

현대위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위아가 CES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CES에서 현대위아는 ‘연결의 여정’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리고 미래형 자동차 공조 시스템인 ‘분산배치형 HVAC’를 최초 공개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탑승객의 체온과 외부

환경,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좌석별로 최적화된 공기 온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전시관의 ‘열관리 체험형 차량’에서 ‘복사열’을 이용해 우리나라 온돌의 따뜻함을 구현한 새로운 차량 난방과 개인별 에어컨을 체험할 수 있다.

자동차 조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구동 부품도 대거 선보인다. 현대위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듀얼 등속조인트’는 자동차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등속조인트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최대 조향각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자카르타 노선 재분배 임박… LCC업계, 줄이어 도전장

연간 여객수요 40만~50만명 달해 제주, 티웨이, 이스타 등 취항 신청 업계 “재무·경험이 핵심기준 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회수된 인천-자카르타 노선 운수권 재배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간 50만 명 수요의 ‘황금 노선’을 둘러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회수된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대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항공사로부터 신규 취항 신청을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재무 자료 등을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운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노선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의 안정성이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연간 여객 수요는 40만~5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은 43만 9563명으로 집계됐고 지난 2024년에는



지난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받고 있다.

/뉴시스

46만4787명, 2023년에는 41만914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49만3510명, 49만1895명으로 연간 50만 명에 근접한 수요를 보였다.

해당 노선은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운항 편수와 사업자가 제한되는 비자유화 노선이다. 신규 항공사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일반 동남아 노선과 달리 과도한 공급 경쟁 가능성이 낮고, 수익성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

는다. 고환율로 수요 변동성이 커진 괌이나 미주 노선과 비교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부각된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경제 도시로, 관광 수요뿐 아니라 비즈니스 출장과 교민·상용 수요 비중이 높은 노선이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생산 거점이 집중돼 있어 기업 출장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동남아 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 특성상 환

승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수요의 질과 폭이 모두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항공사별 경쟁력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1위 사업자로 B737 계열 항공기 약 40대를 보유한 안정적인 기단과 인도네시아 운항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주력 기제가 200석 미만의 소형기라는 점에서 평균 탑승객이 230명 이상인 자카르타 노선에서는 좌석 효율이 과제로 지적된다.

티웨이항공은 A330과 B777 등 중·대형기를 포함한 기단을 보유해 좌석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유럽과 중동 노선을 운영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경험을 쌓아왔고, 최근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지속 운항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도네시아까지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B737-8 기제를 보유했지만 기단 규모가 작고 자본잠식 상태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에어프레미아는 B787-9 중대형 기종을 통한 장거리 운항 경험이 강점이지만, 보유 기제가 제한적인 점이 변수다.

업계에서는 이번 운항사 선정에서 재무 안정성과 중·대형기 운영 경험이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자카르타 노선은 수요 변동성이 적고 공급이 제한된 노선인 만큼 단기 취항 여부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과 중·대형기 운영 경험이 운항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中企 “내년 정책, 금융·세금 부담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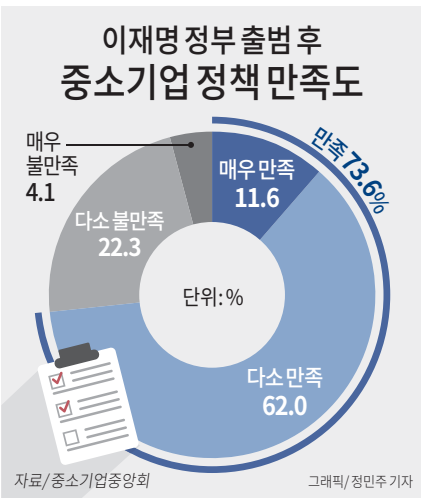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정부 정책 인식조사 중기 74% “이재명 정부 정책 만족”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자재값과 높은 인건비를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저성장과 저출생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 ‘노동정책 유연화’, ‘인력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비제조업 총 30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개를 선택하는 ‘2026년 기업 우려 경영 애로사항’에는 절반이 넘는 50.7%가 ‘고환율 등 원자재·물류비 부담’을 선택했다. 아울러 ‘인건



비 상승’ (40%)과 ‘인력난 확대’ (30.4%)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내년 한국경제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26.7%가 ‘저성장 고착화’를, 24.1%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를 각각 꼽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확대’ (22.9%)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하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43.2%) ▲주 52시간 개선 등 노동정책 유연화(37.7%) ▲외국인력 확대, 청년인재 채용 지원 등 인력난 완화(26.1%) ▲환율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25.5%) 등을 희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3.6%가 ‘만족한다(매우 만족+다소 만족)’고 답했다.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은 26.4%였다.

아울러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 및 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58.3%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상호관세 피해 대응’ (40.9%),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등 금융환경 개선’ (28.7%),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 (2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로템-KIND, 해외철도 사업 맞손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KIND와 해외 철도사업 공동개발 및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추진 사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오른쪽)과 김복환 KIND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웅진그룹 윤새봄 부회장 선임

윤석금웅진그룹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사장(사진)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웅진그룹은 윤새봄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등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웅진 김현호 상무와 웅진프리드리프 이준 이사는 전무와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美 가스터빈 추가 수주

빅테크 기업 계약… 시장 확대 가속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해당 기업이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2027년 1기, 2028년 2기씩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 10월 체결한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에 이은 추가 성과

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약 두 달 만에 동일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총 5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첫 해외수출에 이어 추가 공급계약까지 성사되면서, 두산은 가스터빈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늘어나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국내최초 ‘선재 태깅 로봇’ 도입

“로봇 관련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

현대제철이 선재 검사 및 포장 단계에 로봇을 운용하며 공정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당진 특수강 소형 압연 공장의 선재 코일 출하 라인에 제품 이력·규격 등 정보를 담은 태그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선재 태깅 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용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재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으로 가공한 철강재를 코일 형태로 감아둔 제품이다.

현대제철은 태그 오부착으로 인한 각종 혼재 등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업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출하 작업장의 무인·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로봇을 도입했다.

‘선재 태깅 로봇’ 시스템은 조립로봇과 부착로봇, 컨베이어, 코일 고정장치,

안전펜스 등으로 구성된다. 조립로봇이 출력된 제품 태그에 클립을 조립하고,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된 선재는 고정장치 위에 안착된다. 부착로봇은 선재를 스캔해 태그 부착 위치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태그를 부착한다.

현대제철은 이탈리아 철강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폴리텍과 협업해 지난해부터 로봇 도입을 추진해왔다. 약 2년에 걸쳐 로봇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최근 최종테스트(FAT2)를 통과해 현장 배치를 완료했다. 로봇 주변은 설비 가동 구역과 작업자 진입 구역으로 명확히 분리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그동안 작업자의 손에 의존하던 선재 태그 부착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철강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로봇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에 박윤영 낙점

30년 넘게 몸담은 ‘정통KT맨’… 조직안정·사업 연속성 도모

KT 내 독보적 B2B 전문가로 통해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협력 주도 매출구도, 비통신 분야 확장 기여

보안 신뢰회복, 미래먹거리 발굴 등 취임 직후 고강도 쉐신책 마련 필요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30년 넘게 회사를 지켜온 내부 인사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낙점됐다. 보안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을 선택하면서, 박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17일 KT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윤영 후보는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 네트워크기술연구직으로 입사해 30년 넘게 KT에 몸담은 ‘정통 KT맨’이다. 그는 컨버전스연구소장,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건설팀본부장을 거쳐 2020년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르기까지 KT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



‘정통 KT맨’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쳤다.

특히 박 후보는 KT 내부에서 독보적인 ‘B2B(기업 간 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기업부문장 재임 시절 스마트팩토리와 5G 사물인터넷(IoT) 사업 모델을 주도하며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과의 디지털 혁신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통신에 편중되었던 KT의 매출 구조를 비통신 분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국가 재난망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공공 부문에서의 신뢰도 탄탄하게 쌓

아왔다.

KT 이사회가 외부 인사가 아닌 박 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KT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KT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책임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앞에 놓인 현실은 가혹하다. 당장 발동에 떨어진 불은 ‘보안 신뢰 회

복’이다. KT는 최근 초소형 기지국(펄토셀)을 이용한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보안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객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취임 직후 고강도 쉐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태 당시 수습 경험이 있는 주형철 후보 등 외부 전문가를 제치고 내부 출신인 그가 선택된 만큼, 조직을 빠르게 장악해 보안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기술적 허점으로 지적된 펄토셀 관리 미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탈하는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 또한 시급한 과제다. 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추진해 온 ‘AICT(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박 후보는 마이크로소프트(MS), 팰런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

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고베를 마셨던 KT인 만큼, AI 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통신 본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본격화할 6G(6세대 이동통신) 사업 지원에 발맞춰 AI-RAN(무선접속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 KT가 국내 이동 3사 중 유일하게 5G 단독모드(SA)를 운영하는 기술적 강점을 6G 리더십으로 연결하는 것이 박 후보의 장기적 과제다.

박 후보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내년 3월 주주총회다. 그는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신한은행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윤영 후보는 CEO 선정 직후 “KT가 직면한 위기 상황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며 “시장과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KT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청소년 SNS 금지법’ 적절성 두고 갑론을박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방미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
청소년 건강 보호 vs 과잉 규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섀도우’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김 후보자가 모델로 언급한 호주가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맞물려 규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호주에서 도입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측은 이후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발 물러섰으나, 후보자가 호주의 강력한 규제 모델을 ‘당연한 방향’으로 인용한 만큼 파장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발언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통계 지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7.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SNS 이용률은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비만, 우울감, 수면장애 등 건강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활동 감소와 수면의 질 저하를 부르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서·행동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12세 이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성장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 후보자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한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SNS 이용 연령을 강제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다.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트위터), 유튜브 등 10개에 달하며, 이를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가입을 방치한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7억~500억 원)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안면 인식이나 신분증 제출 등 연령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16세 이상임을 추론하는 ‘행동 기반 분석’ 기술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의 실험은 시행 초기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Reddit)’은 해당 법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호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 측은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해 오히려 이용자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 AI를 이용한 신분증 조작 등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조차 “어떤 해결책도 100% 효과적일 수는 없다”며 한계를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아닌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T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술적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호주 사례에서도 보듯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생체 정보나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보안 위협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잡코리아, 잡플래닛 인수로 플랫폼 입지 강화

내달 1일부터 편입 예정

잡코리아가 잡플래닛을 인수했다.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코리아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잡플래닛을 통합 운영하게 돼 구인자들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의 플랫폼 및 관련 사업을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지분 인수나 합병이 아닌, 잡플래닛 플랫폼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사업을 분리해 양수하는 구조다. 계약은 12월 중 체결됐으며, 12월 31일 종료일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잡플

래닛은 잡코리아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해당 법인은 향후 잡플래닛 유한회사로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인수 금액은 잡플래닛의 성장성과 잡코리아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반영해 거래 규모가 산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채용 공고 데이터와 기업 리뷰 데이터를 결합해, 구직자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잡코리아의 채용 공고는 잡플래닛 플랫폼에 노출되고,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 콘텐츠도 잡코리아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연동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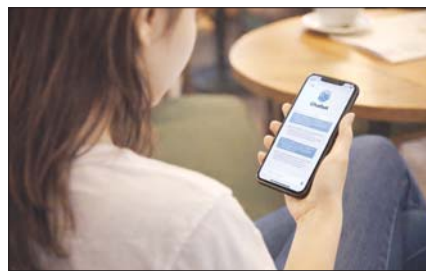
“이번 주말에 변호이동 하면 다음주 개통”

이통3사,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로 오는 20일 변호이동 업무 중단

이번 주말 이동통신 3사의 변호이동이 일시 중단된다. 이때 변호이동으로 구입한 휴대폰의 실제 개통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일 하루 동안 변호이동 업무를 중단한다. 이는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영업전산 데이터 전환 작업에 따른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상 약 10년 주기로 영업 전산 시스템을 교체해 왔다. 이번 작업 역시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산 전환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고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말에 휴대전화를 구매한 변호이동 고객은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이 이뤄진다. /김서현 기자 seoh@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탄핵정국·관세전쟁 뚫고 ‘사천피’ 약진… 상승률 69% 기록

〈4000+코스피〉

2025년 주식시장 결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예상 밖의 성과를 보이며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귀환, 주주친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선 등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 기록

◆ 한국 증시 재평가… 기록적 한 해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43% 상승한 4056.41에 마감하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69.05% 뛰었다. 지난달 3일에는 4221.87까지 올라서며 75.95%까지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까지 9년, 2007년 2000선까지 18년, 이후 2021년 3000선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1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약 10여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다. 하지만 4000선은 단 5년 만에 돌파하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11월 한 달에만 14조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시장 체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지수 역시 34.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3.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15.62%), 나스닥종합 지수(19.68%) 등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닛케이225 지수(24.11%), 중국 상해종합 지수(15.47%), 대만 가권 지수(19.4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이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조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났지만, 6월 조기 대선을 전후로 태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만 약 21조312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중 약 64%(13조6802억원)는 삼성전자를 사들인 금액이다. 연초만 해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증시 환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이후 10월 27일 사상 첫 4000선에 진입

했다.

◆ ‘사천피’는 뉴노멀… 다음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일시적 고점이지 아닌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모멘텀은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으며, 대신증권과 부국증권, NH투자증권도 최대 5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했다. 이외 삼성증권은 4000~4900을, 다올투자증권은 3740~4930, 유안타증권 3800~4600, iM증권 3500~4500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 이익모멘텀은 최상위권”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과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만으로도 최소 10%에서 30%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11.2%인 반면,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ROE가 9.5%에 불과한 일본의 PER도 1.5배에 위치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고, AI 거품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권가, 내년 긍정적 전망 쏟아져
고환율 지속·AI 버블 논란 등 변수
“오천피 시대” 충분히 가능할 것”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달러화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일시조정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연말·연초에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향후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심리 전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부실징후기업 221개사 분류

고금리 장기화에 신용 리스크 이어져
대기업 17개사, 중소기업 204개사

금융당국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221개사를 선정했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늘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채권은 행이총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한 규모다. 등급별로는 C등급이 104개사, D등급이 117개사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7개사로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204개사로 15개 줄었다.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시평가까지 포함하면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기·수시평가를 합산한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37개사로, 전년(391개사)보다 46개 늘었



금융감독원.

/손진영 기자 son@

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과 전자부품업종의 부실징후기업은 각각 8개, 5개 증가한 반면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업종은 감소했다.

부실징후기업이 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

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0.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은 아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산업부·중기부 등 유관기관의 사업재편, 자율구조개선, 재기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의결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추가 지정된 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측은 “종투사 제도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종합투자계좌 상품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 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안전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IMA 상품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전

면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운용 정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되며,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명세와 수익률 현황 등이 제공된다.

/허정윤 기자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한정동 아동문학상

관객 평점 **9.9**, **120만** 독자의 선택
웃음 빵! 재미 팡! 가슴 뭉클!! 올 겨울 꼭 봐야 할 뮤지컬!



뮤지컬

가슴아들어주는 아이들

20개월 이상 관람가

2026.01.03~02.08 능동 상상나라극장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음CIL 마케팅 두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예매 NOL ticket 문의 02-764-9102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가운데), 서병기 유니스트 U미래전략원장(가운데에서 오른쪽) 및 임직원들이 지난 1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AX전략수립 비전 선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전사적 AI 전환 전략 선포 EZY플랫폼 공개로 업무효율 극대화

CAIO 임명, AI 리더 조직 강화
안전관리·예측정비 체계 고도화
EZY 도입, 반복 업무 대폭 축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AI 대전환(AX) 전략수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동서발전이 AI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산업 혁신을 이끌고,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과 동서발전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계해, 회

사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AI 대전환 비전을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여는 에너지 너머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전사 AI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대전환 추진의 핵심가치로 'S-큐브'를 선언하며 △더 과학적이고(Science-based) △더 안전하고(Safety-first) △더 똑똑하게(Smart-managed)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기반의 사결정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강화, 예측정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는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전환 중장기 비전 발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 임명,

AI 리더즈 발대식, 전문가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 사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EZY(EWP+EASY)'를 공식 공개했다. EZY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목표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동서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전 직원이 인공지능 전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

조직개편·인사발령 단행
'재생에너지본부' 등 신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석탄 폐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조직개편 및 37명의 조직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전담할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본부장으로 윤상옥 전무를 임명했다. 또 본사에는 '재생에너지개발

처'와 '재생에너지운영처'로 신설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2026년 6월 예정된 하동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에 대비해, 신규 LNG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하동복합건설본부 등 2개 건설본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석탄 폐지에 따른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술안전본부 산하에 '협력사 에너지전환반'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생명우선 근로환경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전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조직인 안전경영처를 '안전경영

단'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조직장 37명은 각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선발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장 안전 강화, 협력사와 상생까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교육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 독서교육 2030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문해력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내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체계 구축

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8일 광성중학교에서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확산시키는 중장기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

에는 국회 교육위원장과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AI 시대 독서교육의 방향성과 범사회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나타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강조하는 교과 핵심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lhj@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정보·지원 확대 강조

농식품부,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세종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주관한 이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끈 지방정부·체험마을·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지방정부 담당자와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가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등 3개 부문에서 27개 시군·마을·모임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구현한 지방정부 가운데 충남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경남 창원 '빛돌배기마을'이 도시민 대상 농촌 체류 프로그램 우수 마을

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마을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7호인 '창원독미감농업' 기반지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운영하며 참가자에게 전문 영농기술·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해 현장 적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농을 함께 준비하는 도시민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청년 6명으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으로, 저비용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 자재 비교·현장 조사에 직접 나서고 비닐하우스를 자체 설계·조달·시공까지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우수 사례가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농가-유통사 직거래로 판로 혁신 나서

전국 농가 40곳, 대형 구매사와 1:1 교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농가(산지조직)·구매사 직거래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회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의 일환이다.

이번 교류회는 전국 40개소의 농가조직과 유통·수출·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만남의 장으로,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구매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가조직은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식자재 유통사를 비롯해 네이버, 오아시스, GS리테일, 김스클럽 등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NH농협무역 등 3개 수출업체와 4개의 식품제조업체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 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농가와 구매사 간 직거래' /aT

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aT는 설명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농가조직 담당자는 "오늘 상담을 통해 우리지역의 품질 높은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농가는 유통 단계를 줄여 수익을 높이고, 구매사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외시장 다변화 기여 수출업체 15곳 표창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대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이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수산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수출공로탑'은 올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게 주어진다. 이 중 엠에이치수산은 2024년 수산식품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는 수출 8000만 달러 달성으로 7000만 달러 공로탑을,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 선일물산은 각각

3000만 달러 공로탑을 받는다.

엠에이치수산은 수산물 유통업과 수출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냉동수산물(고등어·참치 등) 수출업체로, 일본·중국·베트남부터 가나·코트디부아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여개국에 다양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집트 등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진물산, 예맛상사, 명품전복 영어조합법인 등 수출업체 15개사가 수상한다.

또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상품성을 갖춘 수산식품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브랜드 대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에 업계 썬법 ‘제각각’

롯데, 전담 TF로 주도권 탈환 의지
신라·신세계, 사업성 검토 최우선
현대, 브랜드 파워 열세에 ‘신중’
고환율·매출급감에 보수적 접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재입찰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외 면세업계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알짜 구역’인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구역이 매물로 나왔지만, 업계는 낮아진 최저 입찰가와 여전히 부담스러운 ‘객당 임대료’ 방식 사이에서 치열한 득실 따지기에 돌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11일 T1 3층 출국장 면세점의 DF1, 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8일 사업설명회와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9%, 11.1% 낮아졌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본 7년에 3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업체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면세점이다. 2023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는 이번 재입찰을 통해 공항 면세점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달 10여 명 규



롯데면세점 모습.

/뉴시스

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 세팅을 마치고 사업성 분석에 착수했다. 재무·MD·마케팅 인력을 총동원해 정성평가(60%) 비중이 높아진 이번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한층 신중한 모습이다. 두 회사는 2023년 당시 최저가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으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며 철수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도 사업성 검토가 최우선 순위다. 다만 앞선 사업권 반납 이력이 정성평가 항목에서 페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썬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현대

면세점 역시 재무적 여력은 확보했지만 글로벌 브랜드 파워 등에서 롯데나 신라 대비 열세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입찰 여부를 타진 중이다.

업계 전반에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기 직전인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고, 유커(중국 단체관광객) 대신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의 구매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0조 원(7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면세점 핵심 카테고리

인 뷰티 업계마저 ‘탈면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이블씨앤씨는 최근 면세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뷰티 기업들도 면세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직진출이나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장소가 면세점에서 올리브영, 다이소 등 로드숍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변화도 악재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내년엔 갑자기 낮아질 확률은 없어 보이고 업황 부진도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출혈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손익분기점(BEP)을 맞추는 선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면세업계의 위기는 인천공항의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인천공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신라·신세계가 낸 위약금 등 영업외수익에 힘입어 전년 대비 58% 급증한 756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화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내년에도 안전한 공항 운영뿐 아니라 미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찰 제안서 제출을 마감하고,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신세계백-하이브 ‘2026 시즌그리팅’팝업

신세계백화점이 하이브(HYBE)와 함께 글로벌 K팝 팬덤을 겨냥한 대규모 팝업스토어를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유통사 단독으로 ‘홀리데이 하우스 2026 시즌그리팅 팝업 인 서울(HOLIDAY HOUSE 2026 SEASON’S GREETINGS POP-UP IN SEOUL)’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시즌그리팅’은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와 함께 달력,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된 연말연시 대표 굿즈 패키지다.

이번 팝업에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앤티(&TEAM),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TWSS), 캣츠아이(KATSEYE), 코르티스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9개 팀이 참여한다.

/손종욱 기자



골든블루 포시즌 프로젝트 ‘백아편’ /골든블루

골든블루 ‘포시즌 프로젝트’ 겨울편 유튜브 공개

골든블루는 자사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포시즌(Four Season) 프로젝트’의 마지막 편인 ‘겨울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7일 공개했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사계절의 분위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릴레이 형식의 콘텐츠로, 계절별 감성과 어울리는 아티스트와 협업해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편에는 서정적인 보컬로 주목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백아가 합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 글로벌 다양성 포용 확산 SSG닷컴, ‘바로퀵’ 거점 60곳으로 확대

‘2025 다양성 포럼’ 열어 국적, 성별, 나이, 장애 존중

롯데가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롯데는 17일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025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브 유 앤 미(Weave You & Me)’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지속 성장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았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다양성 존중 철학에 따라 2013년 ‘다양성 헌장’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여성 인재 중심의 ‘와우(WOW) 포럼’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성별, 세대, 장애, 국적 등으로 범위를 넓혀 ‘다양성 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올해 포럼은 그룹의 글로벌 확장에 발

맞춰 ‘글로벌 다양성’ 존중에 초점을 맞췄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마트 등 주요 해외 법인의 다양성 관리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HR 전문가와 국내외 직원이 함께 글로벌 조직 문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현장에는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와 박두환 HR혁신실장을 비롯해 계열사 HR 임원, 외국인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도 7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다. 롯데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국적을 고려해 AI 실시간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롯데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적, 성별, 나이, 장애 등 4대 영역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초저가 편집존 ‘와우샵’ 시범오픈

최대 5000원 제품으로 가격장벽 낮춰

이마트는 17일 왕십리점에 초저가 편집존 ‘와우샵(WOW SHOP)’을 시범 오픈했다. 와우샵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1000원 단위 균일가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숍인숍(Shop-in-shop) 매장이다.

와우샵은 전체 취급 상품 1340여 종 가운데 2000원 이하 상품 비중을 64%, 3000원 이하 상품을 86%까지 구성해 고객이 체감하는 가격 장벽을 크게 낮췄다.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품질까지 고려해 “보는 순간 살 수 밖에 없는 가성비”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손종욱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무료배송 행사
이마트 협업... 상품 1.1만개로 확대

SSG닷컴이 쿠팡커머스서비스 ‘바로퀵’의 운영 거점을 전국 60곳으로 대폭 늘리고 배송비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SG닷컴은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바로퀵’ 무료배송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고객들은 ID당 배송비 무료 쿠폰 2매를 받을 수 있으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

‘바로퀵’은 이마트 매장의 식품 및 생활용품을 반경 3km 이내 주소지까지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9월 19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

한 이후 단계적으로 지역을 넓혀, 이달 기준 서울권 16곳, 경기권 19곳, 지방권 25곳 등 전국 60개 이마트 점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상품 규모도 대폭 커졌다. SSG닷컴은 이마트와 협업해 바로퀵 운영 품목을 론칭 초기 대비 80%가량 늘어난 1만1000여 개로 확대하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고객들이 부담 없이 쿠팡커머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배송 혜택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바로퀵 운영 거점을 90곳까지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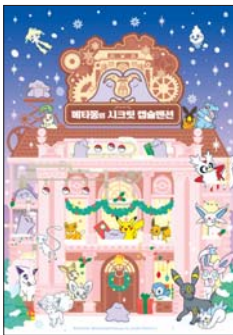
롯데百, 잠실서 ‘포켓몬 겨울 팝업스토어’

내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

롯데백화점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롯데타운 잠실에서 대규모 ‘포켓몬 겨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MZ세대 사이에서 급부상한 ‘캡슐도이’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한정판 굿즈와 이색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팝업이 오픈 3일 만에 10만 명을 동원하며 ‘오픈런’ 현상을 빚은 만큼, 이번에는 인기 상품 물량을 80% 이상 대폭 늘리고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리지널 신상품을 강화했다.

먼저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는



100평 규모의 ‘메타몽의 시크릿 캡슐맨션’(사진)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부산 팝업 품질 대란템부터 ‘포켓몬 스토어 오리지널’ 굿즈, 2026년 캘린더 등 총 180여 종의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최근 출시된 카카오 이모티콘 ‘말랑말랑 메타몽의 하루’와 연계한 상품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손종욱 기자

/신원선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신약 중심 임상 승인·수익화로 경쟁력 입증

네수파립, 위암환자 대상 임상
난소암 등 적응증 다각화 속도
3분기 최대 분기실적 달성도

제일약품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핵심 항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수익 성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항암제 후보물질 '네수파립' 적응증을 추가하며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네수파립 신규 적응증인 '위암'에 대한 임상 1b/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임상 목적은 네수파립과 기존 화학항암제 이리노테칸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상급병원에서 치료제가 부족한 3차 이상 치료 경험이 있는 재발·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료 대안이 매우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 분야에서 네수파립의 임상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위암은 여전히 글로벌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환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위암 신규 환자수는 연간 96만 8734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수는 66만 175명으로,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전 세계 32개 암종 가운데 5위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전경.

/제일약품

이와 관련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네수파립 적응증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질환 관련 임상에도 진입해 있다. 췌장암 임상 1b/2상은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자궁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글로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되고 있다.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수파립과 베바시주맙의 병용요법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 2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도 신청한 상황이다.

이처럼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정조준하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해 신생 바이오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7% 급증해 192억원을 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 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후 1년 만에 수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IR협

의회에 따르면 이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가장 빠른 수익화 달성 사례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표 품목인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자큐보정은 칼륨경쟁적 위산 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다. 지난 4월 연간 매출 목표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 378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 올해 6월 위량양으로 적응증을 확대했고 10월에는 구강붕해정 제형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에 따라 향후 매출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위암 임상 1b/2상 IND 승인은 최근 췌장암 2상 환자 투약 개시와 더불어 네수파립의 항암신약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본격적으로 입증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료 대안이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인수' 속도

우선협상자 선정... 조건부 투자 체결
만성질환 치료제로 포트폴리오 확장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스톡홀름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톡홀름은 우선협상자를 선정 후 공개 경쟁 입찰이 이뤄지는 제도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우선협상자 조건보다 유리한 제안을 하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 기존 우선협상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 제약 인수를 통해 만성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유하지 않았던 세파게 항생제 제조라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 작업소와 품목허가 등을 확보하게 된다.

이율러 항후 부광약품의 의약품 생산 능력도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액상주사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광약품은 주사제 통합 생산방안을 추진해 설비 가동률 향상, 고정비 절감, 원가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부광약품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탁생산 중인 제품을 자사 제조로 전환하는 경우, 외주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의 1차적인 목적은 올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부족한 기존 안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국유니온제약 공장은 지난 2020년 3월 대단위공장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허가를 마친 최신 시설이고 특히 항생제 라인 등 부광약품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부광약품의 경영진 체제에서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영정상화 노후를 활용해 한국유니온제약도 단시일내 실적 개선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비타그란 비타민C구미젤리' 대용량 선포

동아제약, 세가지 맛 15포씩 구성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바라이어티팩'

/동아제약

동아제약은 비타민C 브랜드 비타그란에서 '비타그란 비타민C구미젤리 바라이어티팩'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바라이어티팩은 바구니 형태의 대용량 제품이다. 비타민C 구미젤리 오렌지, 복숭아, 포도 등 3종을 각 15포씩 총 45포를 담았다. 1포만 섭취해도 비타민C·비타민E·아연을 1일 영양성분기준치 100% 충족할 수 있다. 또 쫄쫄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과일 풍미가 더해져 간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브랜드 관계자는 "간편하게

비타민C를 챙기고 싶은 분들, 지인에게 건강을 전하고 싶은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실속형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PC 섹타나인, F&B 특화 AI혁신 박차

네이버 클라우드와 '맞손'
해피포인트 앱,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제조·물류 단계에도 AI 기술 적용

SPC그룹이 경영 전반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 하기 위해 네이버와 손잡는다.

SPC그룹의 IT·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은 AI 플랫폼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AVER 1784에서 전날 'F&B 특화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SPC그룹이 축적해 온 F&B 리테일 사업 경험·데이터에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첨단 AI 기술·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해 'AI 기반 F&B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경영의 효율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NAVER 1784'에서 16일 진행된 'F&B 특화 A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섹타나인 김대일 대표이사(왼쪽)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을 극대화한다. 또, 다른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멤버십 플랫폼 '해피포인트 앱'에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매 이력과 각종 데이터 등을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혜택·메뉴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챗봇 상담뿐 아

니라 고객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고객참여형 R&D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제조와 물류 단계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AI 기반 설비 고장 예측 기술을 통해 설비 중단과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매장 운영 역시 AI 분석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고객 응대와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화 한다.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이사는 "AI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산업의 구조와 경쟁 방식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SPC그룹의 내부 혁신은 물론, F&B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구축해 산업 전체의 미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케미칼, 파마사업 '사업연속성' 인증 획득

국제표준 인증 'ISO 22301'
위기상황서도 생산·공급 지속

SK케미칼은 파마(제약)사업이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에서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 22301'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것으로 재난, 사고, 공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사업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최단시간 내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SK케미칼 파마사업은 청주공장 의약품 생산은 물론 본사 업무까지 포함해 위기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세분화해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업무 복구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왔다. 청주공장은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BCMS)에 대한 내부심사, 내부심사원 양성, 모의 훈련, 경영 검토 등으로 인증 준비를 고도화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SK케미칼 청주공장서 이호진 SK케미칼 청주공장장(오른쪽)과 이일형 로이드사 대표이사가 'ISO 22301' 인증 수여를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SK케미칼 파마사업은 이번 인증을 통해 향후에도 글로벌 제약 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공급 안정성과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품질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과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이번 ISO 22301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CMO·CDMO 사업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우리은행-중앙대, ‘첨단공학과 건립’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중앙대학교와 ‘첨단공학과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7년 중앙대에 지점을 개설했으며, 2008년부터 중앙대의 주거래은행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BMW코리아 미래재단 ‘넥스트 그린 교원 직무연수’ 운영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교사의 환경 교육 전문성과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넥스트 그린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넥스트 그린 교원 직무연수는 전국 초등학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커리큘럼은 기초 개념 학습부터 교과별 적용, 실천 중심 수업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환경교육의 이해에서 교실 적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요약 자료, 수업용 PPT, 수업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다양한 자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ESG 캠페인 등 쌀 10t 적립… 취약계층 기부

KT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완벽식당’ ESG 캠페인과 임직원이 모은 ‘디지털’ 포인트를 통해 적립한 쌀 10톤을 종로푸드뱅크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KT가 기부한 쌀은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KT



LG U+, ‘천원의 사랑’ 누적 기부금 3억 돌파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소액 모금 캠페인 ‘천원의 사랑’의 누적 기부금이 3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부모 여성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아동 지원, 광복 80주년을 맞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등에 활용됐다. /LG유플러스



LX하우시스, ‘그룹 홈 좋은나무와 열매’ 리모델링

LX하우시스는 지난 16일 경기 여주시 소재 그룹홈 ‘그룹 홈 좋은나무와 열매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LX하우시스 CFO 김훈 상무, ‘좋은나무와 열매’ 김경래 시설장, 한국해비타트 이광희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시스

주요기업 연말 나눔 실천

정기선 회장, 개인 소장품 기부 등 ‘착한 소비’ 동참

〈HD현대〉

HD현대 ‘GRC플리마켓’ 개최 정 회장, 현장 찾아 물품구매

HD현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하는 ‘GRC플리마켓’을 개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RC 플리마켓’은 임직원과 사회적 기업,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D현대의 연말 사회공헌 행사다.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에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지원받는 한부모 셀러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수공예품, 디자인 소품, 꽃 등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했다. HD현대 임직원이 기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 10일 ‘GRC플리마켓’ 행사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부한물품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현장에서 판매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도 물품 기부에 참여

했다. 정 회장은 와인, 가죽 장갑, 선글라스 등 개인 소장품을 기부했으며 해당 물품은 경매 방식으로 판매돼 임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포스코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 SK, ‘행복나눔김장’ 전달식 개최

9개 그룹사 참여… 누적 2120억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사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누적 기탁액은 212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엡텍 등 총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지원, 취약계층 자립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1%마리체’, 포스코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운영하는 포스코 봉사단은 제철소가 위치한 포항·광양 지역의 200여 개 마을·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특산물 구매, 농번기 일손 돕기,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는 포스코그룹이 지난 2010년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주간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통해 임직원 자긍심을 높이고, 16년간 사업장 소재지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왔다.

/유혜은 기자

30년간 누적 140만 포기 전달

SK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을 올해로 30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간 누적 약 140만 포기, 무게로는 약 3477톤의 김치가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SK그룹은 17일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라에서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K는 사회적기업 세 곳이 만든 김치 2만 4000포기를 구매, 이를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먹거협)를 통해 전국 539개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2051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1996년부터 그룹 구성원들이 모여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구성원들이 참석하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왼쪽)이 17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라에서 열린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에서 윤종선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는 대규모 행사 대신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김치를 구매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SK는 사회적기업들과 동반 시너지를 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X, 리조트 개발 등 국내외 레저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년 250개홀 이상 골프장 운영 목표

코스닥 상장사 KX가 국내외 레저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견조한 고객 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KX는 지난 5월 인수한 일본 고베 지역의 ‘토조노모리 컨트리클럽’을 통해 내국인 중심 회원권 판매 활성화 및 운영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1972년에 설립된 토조노모리CC는 일본 내 대표 전통 골프장이다.

KX관계자는 “토조노모리CC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만의 성장 로드맵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X의 올 하반기 주요 해외 프로젝트는 베트남 후에 지역에서 진행 중



일본 토조노모리CC 전경. /KX그룹

인 36홀 규모의 골프 리조트 개발 사업이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베트남 당국의투자정책승인(IPA)단계에 있으며, 승인 완료 시 본사업에 대한 중요한 인허가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KX는 내년 초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도 27홀 규모 골프장 및 빌

라200여호 등에 대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클락은 최근 몇 년 새 ▲신공항 확장 ▲수도권 광역고속철도 사업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도시 인프라가 급속히 성장 중이며, 동남아에서도 손꼽히는 개발 잠재력을 갖춘 레저 허브로 평가된다.

KX는 동남아 레저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영역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신규 골프장 인수 및 개발을 위해 현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국내외 180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KX는 내년 최소 250개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NH투자증권 ◇센터장 △NH금융PL 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희성 △수지 WM센터 김대섭 △NH금융PLUS 영업부금용센터 WM3센터 김호성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강세훈 △대전금융센터 WM3센터 송은섭 △목포WM센터 최홍석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한컴그룹 ◇사장 △송상엽 (한컴위드)

부음

▲변민섭씨 별세, 송제호씨 부인상, 송인선·송주희(서울경제신문 국제부 차장)씨 모친상 = 17일 오전 9시22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02-6986-4440

0의 재발견



전 형 일

세상이야기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숫자 '0'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0'을 비롯한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인도 숫자는 10개의 기호로 수를 나타내는 십진법 체계였다. 1부터 9까지 기호를 먼저 만들어 사용했고, 0은 훨씬 지난 5~8세기경에 사용했다.

숫자가 필요한 건 주로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꼭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큰 수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0을 나타내는 기호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동그라미나 점을 찍어 0을 대신했다.

초기 바빌로니아 켈기문자와 송·원 이전의 중국 산목(算木) 계산법에도 빈자리를 남겨 둘 뿐 대응하는 기호가 없었다. 후에 바빌로니아인과 마야인이 0의 기호를 받아들였지만(마야인은 조개껍데기 혹은 눈을 그렸다) 그것으로 빈자리를 표시할 뿐 이를 독립된 숫자로 보지 않았다. ('수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

0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백'이란 개념이

있어야 한다. 인도에서 처음 발명한 것도 무(無)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철학적 전통 덕분이다. 산스크리트어 단어인 '슈냐(shunya)'는 '공백'이면서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인도의 삶과 문화에 녹아있었다. 이는 종교에도 영향을 끼쳐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이나 '공즉시색(空卽是色)'과도 연결이 됐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모순 또는 대립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변증법의 시작이다.

어떤 수에든 0을 곱하면 0이 되어버린다. 소멸이다. 그래서 0은 공(空), 무(無)라는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관념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천하 만물생어유 유생어무(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났으나,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신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충만의 시대로 '비어 있음'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무렵 이슬람인들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數) 계산에 민감했다. 이에 인도의 기수법은 빠르게 퍼졌고 인도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불리게 된 까닭이다.

인도의 십진법 숫자와 0을 쓰게 되면서 비로소 모든 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됐

다. 예를 들어 숫자 3033은 0을 사용했기 때문에 333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같은 3이라도 쓰는 위치에 따라 3000, 300, 30, 3을 나타낸다. 숫자를 쓰는 위치에 따라 다른 자릿값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도 숫자가 유럽에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10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수를 자유자재로 쓰고 계산도 척척 해내는 것을 보고는 속임수나 마법을 부린다고 여겼다. 또 이교도인 아라비아에서 전해졌다는 이유로 쓰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다. ('누구나 읽는 수학의 역사')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0'의 효용성은 현대 들어 더욱 확대됐다. 모든 만물을 0과 1로 표현하는 이진법은 컴퓨터를 만들었고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0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0보다는 1이 우선이다. 1위부터 1등, 一, 첫째 등이 그 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약칭으로 V1(VI P1)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서 출발한 '0'이 최근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덕분에 대단한 숫자(V0)임을 알게 됐다.

전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저서: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사과의 유통기한



김 상 회

서 예 진
(정치부)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사과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혹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기자 본인도 사과는 쉽지 않다. 사과의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다.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을 때, 내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잘못된 사람은 사과를 한두 번, 많아야 몇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여긴

다. "한 번 사과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한다. 편리한 사고방식 아닌가. 철저히 가해자의 사고방식이다. 피해자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상처는 불쑥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처를 꺼내 보이면, 또다시 사과를 들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통상 시일이 지났을 경우 가해자는 "언젠가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과했지 않느냐"며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게 꼭 사적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

일제강점기 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과했다"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여기지 않아서다. 왜냐하면 사과는 '받는 사람이 느꼈을 때' 비로소 사과가 되기 때문이다.

'통석의 념(痛惜の念)'. 일본어로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아주 생소한 표현이다. 더구나 '애통하고 애석하다'는 표현은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회'에 가깝다. 이런 식의 발화는 사과로 인식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란은 어떻게. 내란수괴 혐의자가 탈당했으니 상관 없을까. 그 사람은 그 당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였다. '1호 당원'이었다. 그렇다면 사과가 도리 아닐까. 그럼에도 그들은 1년이 지나서도 사과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8일 (음 10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기대가 너무 높아 만족도가 낮다. 48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 60년생 타인의 사선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다. 72년생 창업에 여럿의 견해가 다들 옳지만 의견통일을. 84년생 기량비에 웃이 젖는 줄 모르고 지출.	
 소	37년생 발등을 찍는 건 도끼 탓이 아니라 내 탓. 4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식구들을 잘 챙기자. 61년생 풍요가 기대된다. 73년생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처럼 형성된다. 85년생 인색함과 비대해진 자아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호랑이	38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50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62년생 요행수를 바라지말자. 74년생 덕을 베푸는데 스승이 따로 있겠는가. 8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가는데.	
 토끼	39년생 인생이 아저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51년생 마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63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75년생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난해진다. 87년생 십 년생간 모아 둔 비상금이 적절하게 쓰인다.	
 양	40년생 하나를 뿌리고 세 개를 얻는 날로 기쁘다. 52년생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말아야 결과가 무난하다. 64년생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에 조심하자. 76년생 오후에 기사화생이다. 88년생 설부터 증여는 결정하고 후회한다.	
 뱀	41년생 둘다리로 두드리고 아는 길도 몰아서. 53년생 머리만 민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65년생 달빛이 비치는 것을 훔쳐 삼아 공부할 것. 77년생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 날. 89년생 진퇴양난 경우라도 평소 신용으로 길이 열린다.	
 말	42년생 직원을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4년생 입이 겹술하면 일도 틀어진다. 66년생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어기지 마라. 78년생 투자의 피상이나 상대방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90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	
 양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5년생 주변에서 고마움의 선물이 들어온다. 67년생 남종지추라 했으니 분발하라. 79년생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91년생 오늘은 6의 숫자가 행운.	
 원숭이	44년생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함을 바라지 마라. 56년생 일시적인 얕은피는 멀리하도록. 68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에서 인기. 80년생 고양이에게 방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진. 92년생 이제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닭	45년생 옛 연인을 꿈에도 그리워 잊기가 어렵다. 5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69년생 재주 기술이 다양하다. 81년생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도 내 탓. 93년생 배우자가 나에게에는 큰 조력자.	
 돼지	46년생 미련해 보이나 신용이 우선. 58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출 것. 70년생 간다는 연인을 붙잡지 않도록. 82년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던 대로. 94년생 남이 보기에는 요행수로 성공한 것 같으나 진정 노력을 했다.	
 돼지	47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 진행하자. 59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 71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83년생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지 않도록. 95년생 일의 자연유가 밖에 일보다 집안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자.	

김상회의四季

리더로 적합한 사주

얼마 전에 중견기업 회장님과 오랜만의 만남 자리가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요한 계열사가 잠시 어려워져 무척 바빴다고 한다. 경영이 악화하기 전에 계열사 리더를 교체해서 위기를 타개했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새삼 리더의 중요성을 절감한 회장님은 리더와 사주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는 말을 건넸다. 조직의 리더로 많은 사람이 조직의 리더 사주라고 하면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구조를 떠올리곤 한다. 명리학 관점에서 좋은 리더는 힘이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에 가깝다. 사주에서 어떤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판단할 때는 일간 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성의 조화를 본다. 일간은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있어야 조직 전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을 돕는 오행이 적절히 배치되어 일간이 너무 약하지 않은 사주가 좋다. 너무 강하면 독단이 되고, 너무 약하면 조직의 변화나 외부 압력에 쉽게 끌려다닌다. 규율 명에 책임을 의미하는 관성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관성이 잘 발달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규범을 중시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특히 정관이 잘 자리잡은 사주는 바른 리더십과 명예를 중시한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준다. 재성은 재물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리더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성 또한 중요하다. 숫자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을 끌어가기 힘들다. 리더의 사주가 좋다는 것은 조직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과 여러 요소가 서로 돕고 견제하는 능력이 좋다는 의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적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7	2
						6	
5					7		4
			7			4	
4			3		8		9
		5			9		
2			5				6
		6					
8	3					9	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2		6		9	6
6	1						2
			1		9		
	7						9
			3		7		
	4					8	9
		8		5		7	
3	9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6	2	7	1	9	1	8	8
7	1	8	6	9	1	9	9	6
9	1	8	6	9	1	9	9	6
8	9	1	6	2	7	9	1	8
6	9	1	8	1	8	2	9	7
8	2	7	9	9	1	6	8	1
7	8	6	1	9	2	8	1	9
1	9	9	7	6	8	2	1	9
2	1	9	1	8	8	7	6	9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7	2	1	1	8	6	8	9
1	8	1	7	9	6	8	9	2
6	8	9	9	8	2	1	7	1
2	9	1	1	7	8	9	8	6
8	6	7	9	2	9	1	1	8
8	1	9	6	8	1	9	2	7
1	2	8	8	6	9	7	1	9
9	1	8	8	9	7	2	6	1
7	9	6	2	1	1	8	9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전국 우수’… 글로벌 허브 도약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산업 육성 인정받아… 경쟁력 입증

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 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정부에서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추진해 온 성과가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 1.7kV급 모빌리티 화합물 반도체 연구 개발 성과, 재직자 전문 인력 양성, 앵커 기업 투자 유치, 협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2월 기화발전특구와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기반을 단



부산시청.

/부산시

계별로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과워텍과 제엠제코 등 앵커 기업 협약 체결,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 탄화규소 학술대회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협력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은 부산 전력 반

도체 특화단지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주관·참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처를 통한 지식 재산권 연구 개발 전략 수립을 마쳤으며 대구 및 광주 특화단지와 수요 연계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연 120명 규모의 재직자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함께, 부산 지역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및 전력반도체 종합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110명의 화합물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부산 팹리스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통한 팹리스 아카데미 개설, 부산-나고야 간 화합물 반도체 국제 교류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업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SK과워텍의 700억원 규모 양산 설비 확대, 아이큐랩 본사 및 생산 시설 준공, 네이처플라워 세미컨덕터 착공 등으로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 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남부권

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전용 생산 시설 구축, 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에 600억원을 투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양산용 팹, 기업 지원센터,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 특화단지 선정은 부산의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양반도체 등 부산 특성을 살린 신산업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이철우 경북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1위’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55.1% 기록… 4개월 만에 1위 탈환

리얼미터가 16일 공개한 지난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 지사는 55.1%를 기록해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7월 공동 1위 이후 4개월 만에 1위에 올랐다. 이어 김영록 전남 지사가 54.9%로 2위, 김두겸 울산시장이 54.0%로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 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평가 우위 측정)에서는 대전 이장우 시장이 127.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울산 김두겸 시장(114.2점)과 강원 김진태 지사(113.7점)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으며 이철우 지사는 103.5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9.0%로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전남 김대중 교육감이 2위, 울산 천창수 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5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6위에 올랐다.

11월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에서는 세종시가 70.5%로 1위, 대전시가 2위, 전남도가 3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월까지만 공개하는 순위에 들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11월 1일, 11월 28일~11월 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시도별 10~11월 각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3.4%이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

전주상의-광주지방국세청 세제지원 논의 등 전북 기업 활력 제고 ‘맞손’

전북 기업 경영부담 완화·활력 제고 기업 애로사항 공유, 세제방안 등 논의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신웅 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법인세·소득세·상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상공회의소

속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 지방 취업 청년 대상 세제 혜택 확대, 국제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요건 완화와 기업 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조정 등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요구도 제시됐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다 시 활기를 찾는 데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만큼 세정 지원 강화와 세무조사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기업인들이 국제 행정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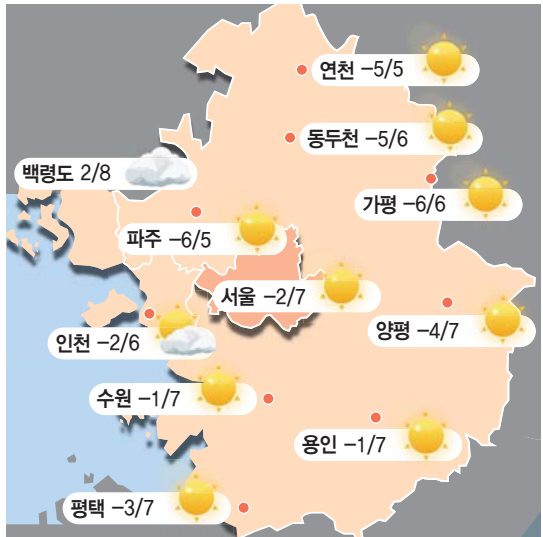
/전주(전북)=김종일 기자 kji7219@

오늘의 날씨

12월 18일 (木)
음력 : 10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천시, 청소년 도박 예방 위해 민관 협력

온라인 불법도박 노출 위험 커져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생 도박 예방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노출 위험이 커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 고위험군 학생 상담·치료 지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예방 홍보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이 추진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 도박 예방 민·관 업무협약식. /인천시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美, EU 빅테크 규제에 ‘상응조치’ 경고…韓은 플법도 대응 논의
▲머스크, 내년 美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 정치 자금 지원 재개 /사진 뉴시스

▲중일 갈등 속 일본 동물원 ‘마지막 판다’ 관람 인파 급증
▲트럼프, 베네수엘라 해상 완전 봉쇄…“경제 전쟁을 군사 전쟁으로 전환”

▲佛하원, ‘연금개혁 잠정 중단’ 사회보장 예산안 승인
▲伊 알프스 절벽서 공룡 발자국 수천개 발견…2억년 전 흔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에
업계별 온도차
나



Life

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신약 중심
경쟁력 입증
L2



간식부터 식사·디저트까지 11년간 진~해진 ‘그릭 카테고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풀무원다는 ‘풀무원요거트 그릭’

국내 그릭 요거트 시장에서 ‘풀무원요거트 그릭’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풀무원다는에 따르면 ‘풀무원요거트 그릭’은 2014년 11월 출시 이후 이달 기준 누적 판매량 4억 5700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3억6000만 개를 돌파한 이후 성장 속도는 오히려 가팔라졌다.

이 제품은 낚스 RI 기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국내 그릭 요거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그릭 요거트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시장을 개척해온 대표 제품이자, 카테고리 자체의 성장을 이끈 ‘메가 히트’ 상품으로 평가된다.

2014년 출시 후 누적판매량 4억 개 돌파
10년간 국내 그릭요거트 시장 점유율 1위

단백질 함량 높고 정통 그릭 유산균 활용
국내 소비자에 ‘정통 그릭’ 새 선택지 제시

◆단백질·유산균·식감…‘정통 그릭’으로 차별화

풀무원요거트 그릭의 경쟁력은 명확하다. 우유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은 단백질 함량과 그리스 크레타섬 유래 유산균(YoFlex · SoGreek F1)을 활용한 발효 방식, 그리고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다. 기존 떠먹는 요거트와는 다른 ‘정통 그릭’ 콘셉트를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같은 제품력은 소비자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풀무원요거트 그릭은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요거트 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되며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헬시 플레저’ 타고 리뉴얼…당 줄이고, 식사로 확장

최근 성장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전략적 리뉴얼이다. 풀무원다는은 지난 5월 걸쳐 ‘풀무원요거트 그릭’ 주요 제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대표 제품인 ‘달지 않은 플레인’은 ‘설탕무첨가 플레인’으로 전환해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우유 유래 당만 남겼다.

그리고 최근 추가 당 저감을 통해 당 함량을 100g 기준 4g에서 1.8g으로 55% 저감하고, 전 제품을 락토플리로 전환했다. 플레인과 블루베리는 식약처농후발효유 평균 대



풀무원요거트 그릭.

비 당 함량을 각각 25%, 15% 낮췄다.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는 요거트를 간식이 아닌 ‘나를 위한 건강한 한 끼’로 소비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춘 전략이다. 대용량 제품을 구매해 필요한 만큼 덜어 먹고, 견과류·과일 등을 곁들이는 식사·대용 소비가 늘면서 영양 밸런스가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올랐다. 실제 리뉴얼 이후 4~6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설탕무첨가 플레인, 전 제품 락토플리로 전환 여름철엔 얼려먹는 ‘그릭 프로즌’ 출시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품 영역 확장해 그릭요거트 중심 건강한 식문화 확산 앞장

◆여름엔 얼려 먹는 ‘그릭 프로즌’ 선보여

제품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풀무원다는은 여름 시즌에 ‘풀무원요거트 그릭 프로즌’을 선보이며 디저트 영역으로 확장했다. 리얼 그릭 요거트를 그대로 얼려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냉동 후에도 특유의 쫄쫄하고 진한 텍스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레인’과 ‘딸기’ 두 가지 맛으로 선보인 그릭 프로즌은 당시 “아이스크림 대신 먹기 좋다”, “젤라토처럼 쫄쫄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건강한 여름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단백질과 유산균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아이스크림과 차별화했다.

◆10년 1위의 비결은 ‘카테고리 확장’

풀무원요거트 그릭의 성공 요인은 단일 제품의 히트에 그치지 않는다. 설탕무첨가 플레인, 플레인, 블루베리 등 기본 라인업



풀무원요거트 그릭 프로즌.



풀무원요거트 그릭 무가당 플레인·플레인 대용량. /풀무원다는

을 중심으로 ‘그릭 시그니처’, ‘그릭 프로즌’까지 확장하며 간식·식사 대용·디저트로 이어지는 다양한 소비 니즈를 흡수했다.

업계에서는 풀무원요거트 그릭이 단순히 점유율 1위 브랜드를 넘어 국내 그릭 요거트 시장의 기준을 만든 사례로 평가한다.

풀무원요거트 관계자는 “제품 혁신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누적 판매 4억 개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그릭 요거트를 중심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쌓아온 ‘그릭’이라는 자산 위에서 풀무원요거트 그릭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토틀넘의 계속되는 손흥민 사랑…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발롱도르’ 뎀벨레, FIFA 올해의 선수까지 ‘2관왕’ 달성
/사진 뉴시스

▲프로야구 NC 송승환 은퇴…일본에서 제2의 야구 인생 계획
▲‘아바타: 불과 재’ 오늘 개봉…사전 예매량 60만 장

▲파리 법원, “팀 PSG은 선수 음바페에 1000억 원 지불해야”
▲궁궐 관람료 ‘9730원 낼 수 있다’…현행 세 배 수준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